

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채권전략 안예하 yhahn@kiwoom.com



지난주 동향

지난주 국고채 금리는 상승 마감했다. 국내 정치 불확실성 속에 추경 편성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, 미국 12 월 FOMC 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평가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. 국고 3 년물은 전주 대비 7.6bp 상승한 2.612%, 10 년물은 전주 대비 18.5bp 상승한 2.860%에 거래 마감했다. 국고 3-10 년 스프레드는 24.8bp 로 전주보다 큰 폭 확대되었다.

주 초반부터 국고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. 주말 사이 있었던 탄핵소추안 가결로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. 내년 초 추경 논의는 제약되는 양상이나, 적어도 내년 중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장기채 중심으로 주 초반부터 스티프닝되었다.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또한 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. 한편,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정부 세출예산의 75%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.

한편 주 중반 국고채 금리는 큰 폭 하락하기도 했다.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가 설명회 간담회에서 성장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한 가운데, 1 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한 한편, 빅 컷까지는 아니라고 언급해 적어도 인하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. 이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 유입되며 큰 폭 하락했다.

다만 주 후반 들어 미국 FOMC 영향으로 재차 상승했다. 미 연준은 12 월 FOMC 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, 1 명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며, 점도표 또한 내년 2 회 인하로 대폭 수정하면서 시장금리는 급등했다. 내년 물가에 대해서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, 이로 인해 내년 미 연준의 동결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미국채 10 년물 금리는 4.5% 레벨로 올라섰으며, 국고채 금리도 주 후반 이에 연동되며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감했다.

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	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
국고 2 년	2.730	7.7	-19.9	-51.2	미국채 2 년	4.310	6.5	-0.4	6.0
국고 3 년	2.612	7.6	-26.3	-53.3	미국채 3 년	4.313	9.2	4.5	30.4
국고 5 년	2.760	14.5	-16.0	-39.5	미국채 5 년	4.375	12.5	9.6	52.8
국고 10 년	2.860	18.5	-15.3	-31.5	미국채 10 년	4.522	12.6	11.2	64.3
국고 30 년	2.720	22.7	-17.0	-36.0	미국채 30 년	4.720	11.9	12.3	69.2

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		현재(%)	1W(bp)	1M(bp)	YTD(bp)
통안 91 일	2.957	-0.2	-10.0	-50.4	여전채 AA+	3.195	0.7	14.2	-9.5
통안채 1 년	2.684	0.1	-15.1	-70.3	여전채 AA-	3.353	0.7	14.9	-24.9
통안채 2 년	2.725	7.0	-20.3	-54.0	회사채 AA+	3.206	0.6	10.8	-4.4
공사채 AAA	2.943	0.4	7.2	-4.1	회사채 AA-	3.282	0.7	10.9	-7.4
은행채 AAA	2.976	0.5	7.7	-11.7	회사채 A+	3.585	0.2	8.1	-44.4

*통안채 제외 3 년물 기준, 국고 대비 스프레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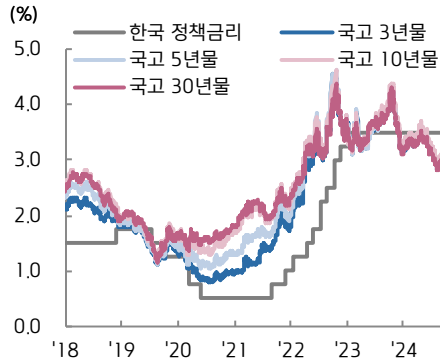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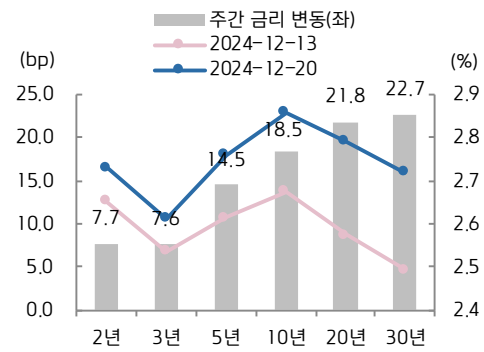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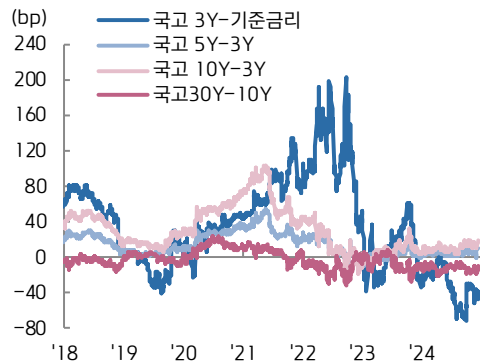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수익률 곡선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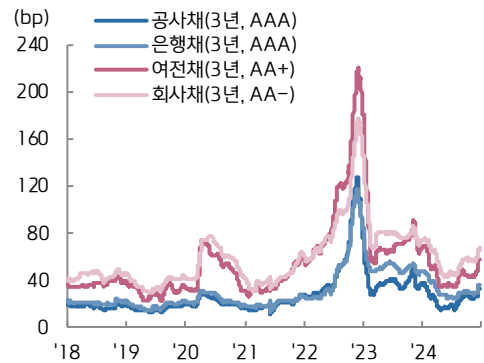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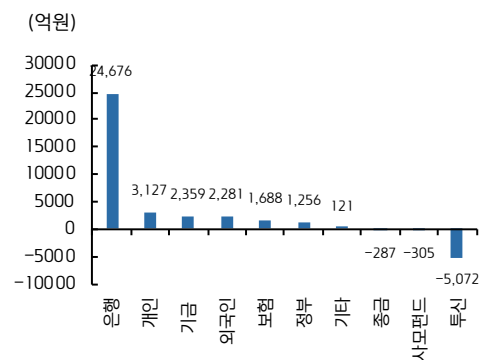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회사채 스프레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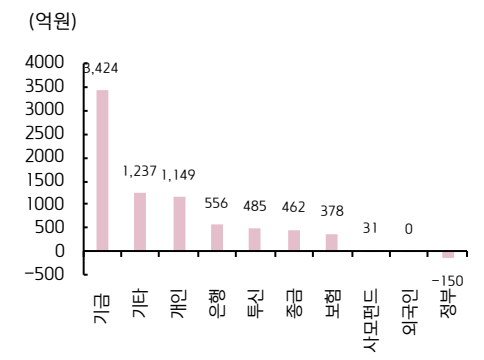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국채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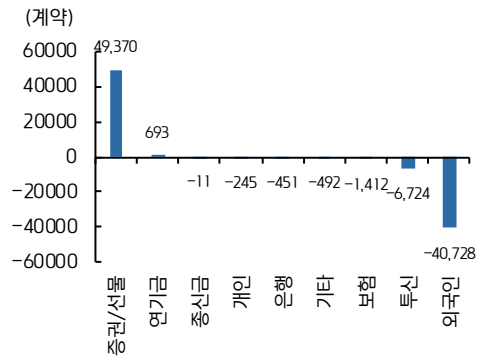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회사채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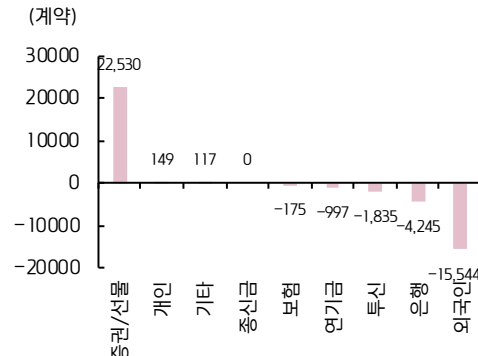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TB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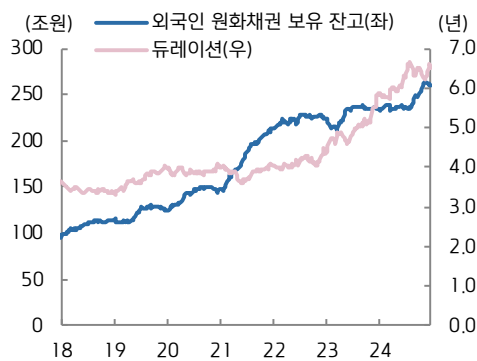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LKTB 주간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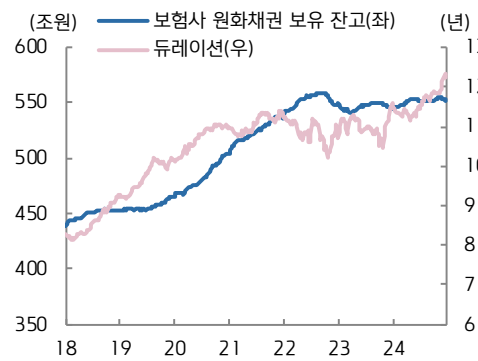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외국인 원화채권 수급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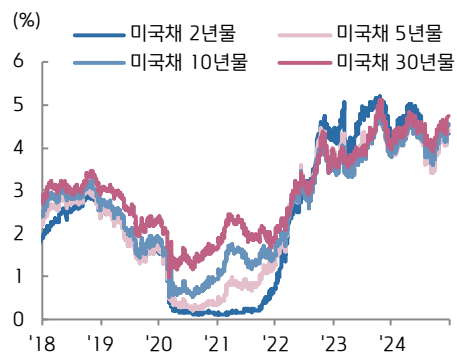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보험사 원화채권 수급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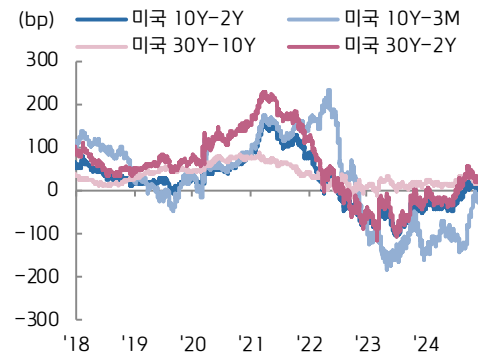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채 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